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8년 06월 30일 발행(203호)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03 ISSUE

지난해 말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금년 8월부터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부처 간의 조율이 한창이다.

04 NEWS IN NEWS

안경과 선글라스가 제외된 전안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안경 제조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20 PROSPECT

존슨앤드존슨이 이선영 상무를 오는 7월 1일부로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전의 신임 대표로 선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도코리아
안경사 구인구직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www.nadokorea.co.kr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나도코리아’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무료로
안경사 구인구직을 이용하세요!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EL 053.353.9992
FAX 053.351.4063

바슈롬 레이셀

BAUSCH+LOMB
LACELLE™

시선을
 사로잡는 눈빛

NEW

멜로우 브라운



크리스탈 브라운 트윙클 브라운 스파클링 블랙 쉬머링 골드 글리터링 그레이

NEW

미스틱 그레이





전국 안경·콘택트 전문체인
(주) 안경매니저

201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015~17 우수프랜차이즈 3년 연속 선정!

(주)안경매니저 가맹점 모집

OPTICAL MANAGER



(주)안경매니저
가맹 안내·문의

가맹 조건

구분	가맹비	월관리비
안경매니저	500만원	30만원
씨채널안경	500만원	20만원 원부 상권 별도 책정
아이피아	1000만원	30만원

※일부 지역 제외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총	괄	이재형	본부장	010-9670-6666
서울 · 경기북부 · 충북	서영태	팀장		010-9364-1739
인천 · 강원 · 경기남부 · 충남	이준영	팀장		010-9424-5438
전남 · 전북	문기영	팀장		010-7557-8208
대전 · 경상도	노창호	팀장		010-9976-5058

NAVER

You Tube

facebook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아



안경매니저



씨채널안경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아오아

www.aoa.co.kr

미미상사 02.333.1123

ASAHI 1.67 / 1.74 양면바구면 UV 퍼펙트 출세!



안경렌즈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시력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
아사히 누진다초점렌즈가 거래 안경원을 신나게 만듭니다.

아이미광학 T.02.774.4477 F.02.753.9262

돌보기 온라인 소문... 안경사 3중고

(매출하락·출혈 경쟁·업권 축소)

정부, 작년 12월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경쟁제한 규제혁파 대상'으로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 심층 논의
복지부, 당시 회의 시 연구용역서 도출된 결과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거쳐 올 8월에 인터넷 판매 여부 결정기로 보고

정부의 힘 켜 두 위원회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압력 소문
안경사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 일자리 확대한다며 온라인 주장

개인별 시력 차이 외면한 온라인 판매 허용은 국민 시 건강 위협
돌보기의 온라인 판매 주장은 안경의 진료료적 전문성 무시 행위

일명 돌보기안경이 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욕심 품목'으로 내몰리며 안경사의 손을 벗어날 위기에 빠졌다. 최근 안경계 주변에 7월부터 저도수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는 소문이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작년 12월 정부의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20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따라 <양쪽 렌즈 도수가 같은 일정한 도수 이하(저도수인) 시력 보정용 안경은 올해 8월부터 인터넷 등 통신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직 유효한 상태다. 당시 안경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추진방안을 '저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추진방안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결정은 8월이라는 시간표에 따라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

복지부 "지금은 단순 검토 단계"

이처럼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심지어 저도수의 범위도 애매한 상태에서 정부의 힘 켜 복수의 기관에서 주무부처에 허용압력을 넣는다는 소문까지 돌리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올해 초부터 어느 힘 있는 위원회와 안경산업과 관련한 정부 부처가 복지부에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

문했다는 얘기가 돌리고 있다"며 "힘 켜 복수의 기관에서 제기하는 논의는 단순한 논의가 아닌 일종의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협회는 복지부에 돌보기나 저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절대 허용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정회의에서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을 때 '내년(2018년) 초에 연구용역 의뢰해서 얻은 결과와 관계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8년 6월에 허용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연구결과와 국민 의견에 따라 허용에 문제가 없다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허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없었던 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현재의 추진 상황을 묻는 기자에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당 현안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문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내 선에서는 들어본 적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모 신문은 일자리 내세우며 허용 주장

이처럼 돌보기 및 저도수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최근 한 유력 경제신문이 '노년층'이 1면 메인기사로 '돌보기안경, 온라인판매 위험'... 황당한 기득권'이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해 안경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시기적으로 메인 기사로 올라갈 내용도 아닐뿐더러 저도수



▲ 최근 업계 일각에서 7월 중에 일명 돌보기 근용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안경의 성수기인 5~6월에도 심하게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일선 안경사들은 선글라스 고객 실종에 이은 공터 고객 증가, 또 근용안경까지 온라인화될 경우 업권이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근용안경의 가판대 모습이다.

안경의 온라인이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보도된 이 기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해외 많은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 안경사 등 기득권단체의 반대로 국내시장에선 불법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침묵의 카르텔'이 한국의 미래산업과 서비스 발전을 늦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이 기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규제 기득권 타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불가를 주장하는 안경계를 '기득권 세력'으로 내몰면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온라인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 박경희 교수는 "돌보기안경은 노인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기로서 시력을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정피로, 양안시 이상 등은

의 피로감이 유발된다"며 "아무리 저도수 안경이라도 온라인 판매 허용은 고객에게 편리성과 경제성 증대가 아니라 환자의 안보에 피해를 끼치므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양식 있는 신문사가 전문성이 중요한 안경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고, 만약 온라인 허용으로 안경사가 일자리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일선 안경사들은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온라인에서 돌보기 판매 허용 → 저도수 안경 판매 허용 → 콘택트렌즈 허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협은 對국민 캠페인을 통해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지는 안보건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합동 취재팀

특특특

- "날씨가 더워서 집에만 계시나? 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안경원이 최악까지 왔나 봅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안경원 원장)
- "길 건너 안경원은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점포정리 세일' 중입니다. 정말 저런 방법 밖에 없을까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안경사)

안경 땀 전안법 7월 본격 시행

안경 제조·유통업체 안도... 안경의 의료기기화 추진하던 대안협은 불만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소상공인들의 관심 속에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안법 전무개정안의 핵심은 의류나 잡화 등은 KC(국가통합인증규제)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고, 구매대행 또한 위험도가 낮은 제품도 KC인증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이 위험도와 안전성에 따라 총 4단계로 분류해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 평가가 최저 수준이면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안전용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전안법의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은 ▶도수테와 선글라스 ▶물안경 ▶가정용 섬유제품(접촉성 섬유제품 포함) ▶간이 빨래걸이 ▶폴리염화비닐관 ▶우산·양산 ▶반지 ▶손목시계 등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종이장판지 등 23개 품목은 KC인증을 면제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안경업계 관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대구의 한 안경 제조업체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 안경이 전안법에 포함 실시되었다면 안경 제조·유통업체들은 모델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전부 새롭게 검사를 받음으로써 대구의 안경 제조업체들은 사업을 접어



▲ 지난 6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펴낸 전안법 가이드라인.

야 했다"며 "무엇보다 전안법에서 안경이 제외돼 천만다행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한 안경원 원장은 "많은 제품들이 KC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안경만 기준이 없으면 안경의 품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우려를 표시했고, 대한안경사협회 역시 안경이 전안법에서 제외된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안협 중앙회의 한 부회장은 "안경이 전안법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우리 협회에서 추진하던 안경의 의료기기화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이어 6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쳤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안법 가이드라인'을 펴내는 등 전안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문의 043)870-5455

경남 창원, 과대광고로 시끌 시끌

모 안경원, 폐업정리하며 파격 판매 → 상호 교체 후 과대 오픈행사 준비



▲ 과대광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의 모 안경원 전경.

최근 경남 창원의 모 안경체인인의 가맹점이 과대광고로 주변의 지탄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해당 안경원은 오는 7월말 JINYs 안경체인으로 상호를 교체해 보다 적극적으로 할인판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변 안경사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니스안경체인은 일본 안경시장에서 최초로 저가정책을 선보여 물의를 일으킨 지니스옵티컬(JIN's Optical)의 한국 현지화 모델 형태로서 이 체인은 '90% 세일, 원가이하 점포정리'로 영업한 후 폐업기간이 종료되면 상호를 바꾸어 새로운 광고를 전개할 방침이다.

창원분회의 관계자는 "우리 분회는 17년 전부터 90여 안경원 전체가 자발적으로 톨 톨 뭉쳐 1,3주 일요일에 100% 휴무제를 지

켜왔는데, 이 안경원은 지난 5월부터 휴무제를 무시하고 지금은 폐업정리한다며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다"며 "특히 다음 달엔 가격 파괴로 소문난 J안경체인으로 과대광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구청과 보건소와 연계해 불법과대광고 제재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안경원의 원장은 "과대광고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 휴무제는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니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휴무제 이탈과 폐업정리라는 미명으로 과다 할인판매하고 있는 해당 안경원은 호황을 누리며 인근 안경원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 필요한 선글라스 해외직구

한국소비자원, 결재 받은 후 연락 두절·가짜 상품 배송 사례 발표

해외직구를 통해 선글라스 등 안경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은 보도자료에서 SNS를 통해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주간 접수된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구입과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총 32건으로 이중 '레이밴'이 2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5건은 같은 사이트(bhrs.com)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서울 중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피팅을 요청하는 고객 대부분이 해외직구를 통해 선글라스를 구입하는데, 대부분 짝퉁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품 선글라스 구

브랜드	홈페이지	사기의심 사이트(URL)
레이밴 (Ray-Ban)		www.rbhrs.com
		www.rbkra.club
		www.rbkrc.club
젠틀몬스터 (GENTLE MONSTER)		www.fiset.site
		www.gmsale.website
		www.runeir.site

▲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선글라스 해외직구 관련 주요 피해사이트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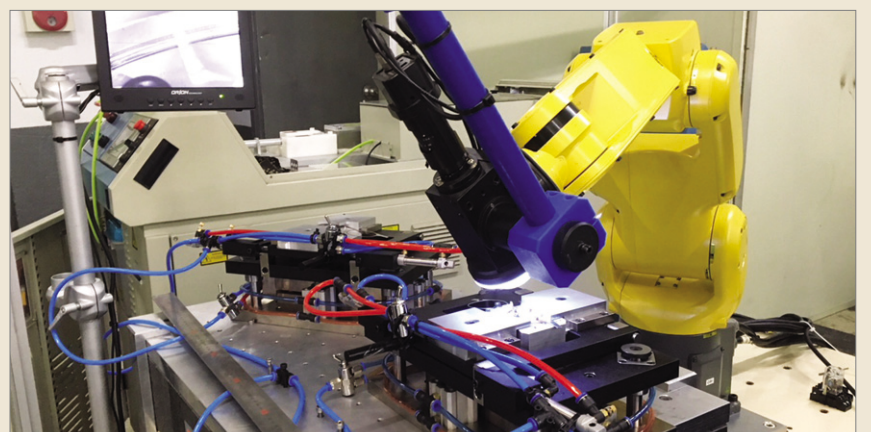
입과 완벽하게 피팅하려면 안경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초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해외직구를 통한 총 수입액은 2015년의 15억 2천만달러(약 1조 7천 7백 억원)보다 6.7% 증가한 16억 3천만달러(약 1조 9천 2백 억원)였고, 이중 아이웨어의 해외직구 수입액은 2015년 2천 1백만달러(약 245억 원)에서 2016년엔 무려 27.7% 증가한 2천 9백만달러(약 339억 원)로 나타났다. 안경류가 전체 해외직구 물품의 평균 상승률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날 만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의 043)880-5621

세계 첫 용접 기술 개발... 안경 품질 최고

한국기계연구원 연구팀, 공정 속도도 10배 향상... 대구 모 제조업체에 기술 이전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천홍, 기계연) 레이저기술산업화연구단의 이광현 박사 연구팀이 국내 안경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레이저 용접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안경테 용접 부분의 완성도를 대폭 높이고, 제작공정 최적화와 후처리 공정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안경테 제조산업은 140여 가지 공정이 필요한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용접의 완성도에 따라 제품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국내 최초로 사람이 직

접 용접하는 대신 레이저를 안경테를 정확한 위치에 세팅하면 입력된 설계에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용접 가공할 수 있다.

연구팀의 이광현 박사는 "기술적 한계에 놓여있던 기존의 공정기술에 레이저 용접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며 "고정밀 레이저를 이용한 이 기술이 국내 안경 산업계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술은 대구의 한 안경 제조업체에 이전돼 신제품 양산을 준비 중이다.

문의 042)868-7114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

Clalen iRiS M

클라렌 아이리스 M

2+1

2set 구매 시 1set 증정 (~7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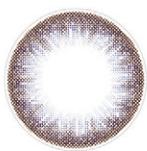
NEW 클라렌 아이리스M 5종



릴리 브라운



릴리 그린



릴리 블루



선플라워 그레이



선플라워 브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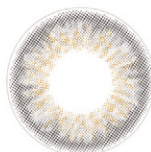
권장소비자가 15,000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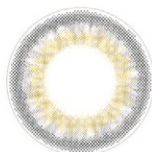
NEW 클라렌 아이리스M 3종 (총 16종)



레이첼 브라운



레이첼 그레이



셀레나 그레이

권장소비자가 20,000원 (1+1)



정확한 안경 조제를 위한 타각적 굴절검사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금지는 국가의 직무유기... 국민에게 안경 조제를 위한 타각적 굴절검사가기 사용은 당연

“요즘은 안경을 얼마에 팔아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놀러온 후배가 푸념겸 하소연처럼 내뱉는 첫마디이다. 이어지는 푸념 한마디 더 들으면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콘택트렌즈 가격파괴에 이제는 안경원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안경렌즈마저도 ‘E50’이라는 체인에서 갈가리 찢어버렸네요.” “안경원은 가격경쟁 말고는 정말 경쟁할 게 없는 겁니까?”

외국계 대형 유통회사가 직영 판매장을 오픈하고 있고, 안경업계 전반이 무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필자가 두려운 것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안경사라는 전문 직능을 중심에 두거나 고려했다는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도한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개편과 변화는 안경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안경원의 매출 확장을 통한 안경사들의 실질적인 수입을 늘리면서 안경사 직능의 전문성을 확보해내는 것이 향후 안경업계의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해답 또한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첫째는 안경사가 합법적으로 타각적 검사기기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한 축으로 안경

안광과서 타각적 굴절기기 사용법 교육

안경사의 타각검사 사용 권한 확보해야

정확한 검사 위한 장비는 국민들에 중요

슬릿램프, 토포그래피도 안경사 필수장비

안경사는 안과 의사의 영역에 관심 없고

초고령사회서 안경사의 전문 역할 중요



▲ 모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이 타각적 굴절검사기기인 Auto-Refractor/Keratometer를 이용해 검안을 진행 중이다(이 자료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가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타각적 검사는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들에게 금지하는 것은 안경사란 전문 직능을 만든 국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초기 안경사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안경사의 전문성과 이후 30여 년간 각 대학에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전문 교육을 받아서 국가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현재의 안경사 전문성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국가의 규제개혁이나 보건 정책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력의 저하를 질병으로 인식하여 다수의 청소년과 노인들이 안과를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그리고 국가 보험 재정상으로도 과도한 요구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시력검사를 안경원에서 시행하고 국가면허를 받은 안경사들이 안경원에 있는데 몇 십 년 전 의료기기법으로 관련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옳은 일 아니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문제는 안과의 사나 안경사의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안경을 맞추는 국민들은 정확한 시력검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확한 시력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는 당연히 안경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유가 더 필요하겠는가?

또한 안경사가 가격경쟁이 아닌 전문성으로 경쟁하려면 현재 많이 공부하고 있는 양안시검사나 비전테라피를 넘어서서 타각적 굴절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레티노스코프와 케라토포메터를 사용해야 하고, 슬릿램프와 토포그래피(각막지형도)등 눈과 관련된 장비들을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눈건강 위해 건강보험도 불가피

안경사들은 안과 의사의 진료 영역을 침범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안질환과 관련된 분야는 전문 의학 분야로서 안과 의사의 당연한 영역이다. 그리고 현재 안경사들은 일선 개원 안경원이나 안과 병원들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이상의 반대는 몽니일 뿐이다.

아쉬운 것은 대한안경사협회가 지난 기간 안경사단독법 제정이라는 허황된 명분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고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 허용으로 힘을 모았다면 ‘한 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은 합헌’이란 이런 뉴스가 아닌 ‘안경원에서 더 정밀한 시력 검사 가능’ 이런 뉴스를 보았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결국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 또는 잘 해내느냐의 문제일 뿐 건강보험 체계로의 접근은 불가피할 것이다.

대안협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안경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내 입기만 모면할 일이 아니라 초기 많은 비난과 이견이 노출되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인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대현 교수
前 대한안경사협회 행정부회장
現 글라스비바안경 부천점 원장
現 강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겸임교수
現 ㈜비바보청기 대표이사

풍향계

매출 급감하는 소상공인 업종



최근 발표된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의 주요 소상공업종의 월평균 매출의 증감률을 보면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에 깊이 빠졌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안경원은 지난해에 비해 -12.8%를 기록해 안경 소비의 둔화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불경기 때도 꾸준히 증가하는 이상하고 독특한 업종이 안경원이지만, 문제는 안경원 수가 완전히 과포화상태에 빠져 앞으로 고객과 수익률이 더 심각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라며 “이처럼 한과

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전문화와 개성화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방·신발·액세서리	-6.8%
제과·제빵·떡	-8.9%
패스트푸드	-9.7%
보습·입시학원	-10.3%
안경·카메라	-12.8%
취미·체육학원	-20.2%
모텔·여관·여인숙	-52.2%

▲ 2017년 1분기 대비 2018년 1분기 월평균 매출 증감률

UV ZERO

Blue Light is everywhere



(주) 하이비전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3310호

Tel. 1899-7391 Fax.031.278-1892 Mail.hivisionkorea@hivision.co.kr Web.www.hivision.co.kr



●경기대명 - 경기남부 031-391.5942 ●신성울탁-대전.충북남 042.535.1514 ●하이비전 - 부산.울산.경남 1600.0970/051.257.7001

‘바슈롬 레이셀’ … 새로운 컬러 2종 런칭

사랑스런 색상의 멜로우 브라운, 미스틱 그레이 추가… 총 7가지 구성으로 색다른 분위기 다양하게 연출 가능

(주)바슈롬코리아(대표 김형준)에서 데일리 컬러렌즈인 BAUSCHLOMB LACELLE의 새로운 컬러인 ‘멜로우 브라운’과 ‘미스틱 그레이’를 선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 출시한 두 가지 색상은 부드러운 블랜딩 처리로 풍부한 컬러감과 자연스러운 눈빛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멜로우 브라운은 브라운과 그레이 컬러의 블랜딩으로 기존 레이셀의 브라운 컬러보다 우아한 분위기로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스틱 그레이는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의 자연스러운 블랜딩을 통해 부담스럽지 않은 은은한 컬러로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의 젊은 여성들의 니즈에 꼭 맞는 컬러이다.

회사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에도 가수 크리스탈 씨가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며 “레이셀 라인에 새롭게 멜로우 브라운, 미스틱 그레이가 추가됨으로써 컬러는 모두 레이셀 스파클링 블랙, 트윙클 브라운, 크리스탈 브라운, 쉬머링 골드, 글리터링 그레이 등 합쳐 모두 7가지 컬러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슈롬 레이셀은 뷰티와 패션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을 주 타겟으로 한국인의 자연스런 눈동자에 맞춘 블랜딩 처리로 더 한층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070-7167-9922



여름과 함께하는 렌즈미 풍성 이벤트 출발!~



(주)렌즈미(대표 송민섭)에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렌즈미 썸머 어벤처스’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각각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대의 병렌즈를 교차 증정하는 1+1 판매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의 진행 상품은 ▶2만원- 티어썸 브라운, 클로 그레이, 슈가 펄14K, 티어펄 홀로그램 ▶3만원- 슈가 펄 홀로그램, 키스앤킬33, 키스앤킬23 ▶4만원- 키스앤킬14, 키스앤킬24 ▶5만원- 키스앤킬05, 키스앤킬15, 키스앤킬25 ▶6만원- 키스앤킬06, 키스앤킬16 등이 포함되어 있다. 렌즈미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썸머 어벤처스에 키스앤킬 시리즈는 렌즈미의 프리미엄 시리즈로써 시리즈의 모든 상품이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제작됐다”며 “이번 행사의 1차는 오는 7월 2일부터 15일까지, 2차 행사 일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031)574-9595

인터로조, 클라렌 아이리스M 5종 추가 출시

컬러렌즈 최초 착용인에게 완벽 디자인 제공… 출시기념으로 2세트 구매 시 1세트 추가 증정



스럽게 개성을 드러내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일선 안경원은 컬러렌즈를 처음 착용하거나 구매를 망설이던 사용자들에게 보다

(주)인터로조(대표 노시철)에서 ‘Claren Iris M’의 15,000원 라인의 5종을 이달 말에 신규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라인인 자연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을 제안하게 되었다.

인터로조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많은 컬러렌즈가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디자인이 부담되거나 안구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리스 M은 자연스러운 디자인과 개성으로 쉽게 선택되는 아이템”이라며 “국내 1위의 콘택트 렌즈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 인정받은 자사의 미용렌즈는 착용자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렌즈”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자사는 출시기념으로 2세트 구매 시 1세트를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오는 7월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02)709-6677

문의 080-023-0202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

난시교정 똑똑한 한 달용 ‘아큐브 비타 난시용’ 출시



(주)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J&J)이 한 달 착용렌즈 ‘ACUVUE vita 난시용’을 출시했다. 1달용 난시 전용렌즈 출시는 ACUVUE vita를 선보인 지 1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런칭한 아큐브 비타 난시용은 가성비를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한 달 내내 촉촉함이 유지되어 착용감이 뛰어나고, 아큐브만의 난시 기술이 더해져 더욱 선명한 시력 교정을 제공하는 고기능 콘택트렌즈이다.

특히 아큐브 비타 난시용에 적용된 ‘ASD(Accelerated Stabilization Design)’라는 이 특허기술은 중력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난시렌즈 기술과 달리 자연스러운 눈 깜빡임만으로 축을 빠르게 교정시켜 어떤 자세에서나 뚜렷한 시야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지어 높거나 고개를 돌릴 때 시야가 흐려지기 쉬운 난시용 렌즈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아큐브 비타 난시용 렌즈인 것.

J&J 마케팅팀의 한 관계자는 “고도의 기술이 결합된 아큐브 비타 난시용이 난시 교정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100% 만족을 제공한다”며 “자사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안경원에서 아큐브 비타 근시용 및 난시용 제품 구매 시 1팩 당 2알을 추가로 제공하는 행사를 7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르뱅’ 은 트렌드세터들의 아이웨어

투페이스옵티칼, 스타 마케팅 효과 짹짹… 콤비테로 안경시장서 인기 모아

투 페이스 옵티칼(대표 고대우)의 CARVEN이 활발한 스타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엔 그룹 티타임의 캡씨가 포스터 촬영에 카르뱅의 rainbow col.4 컬렉션을 착용해 주목받고 있는데, 오버사이즈의 투명 프레임인 레인보우는 전체적으로 시원해 보이는 콘셉트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아세테이트와 메탈의 콤비네이션인 이번 신상은 최근 시장에



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53)353-7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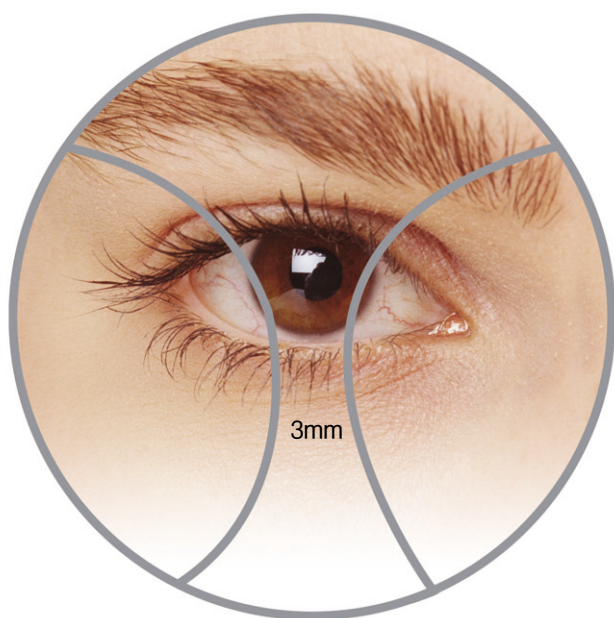
내눈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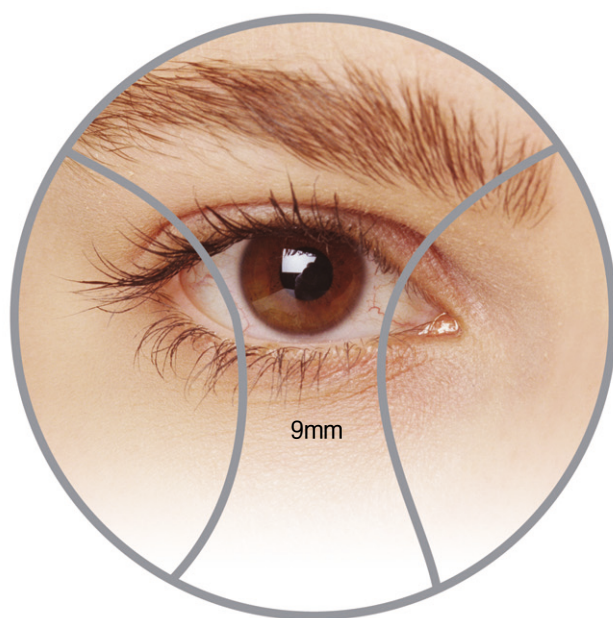
누진다초점렌즈- 그것은 자연 시력을 전하는 천연 시력

언제나 자연의 시력을 선사해야 되는 안경렌즈- 아사히 안경렌즈는 우리 모두에게 천연 시력을 제공합니다.

아사히 광폭누진 ASAHI-KIMAN 신제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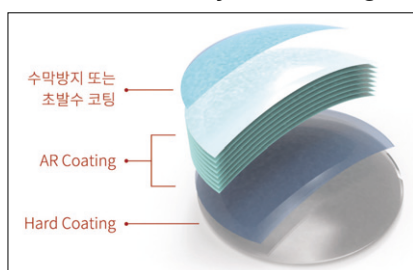
일반외면누진



KIMAN 내면누진

- 중간대 누진폭이 일반누진보다 3배나 더 넓습니다.
- 내면누진 설계로 주변부 왜곡현상을 최소화했습니다.
- 원시 착용자에 최적의 깨끗하고 맑으며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 가성비 높은 여벌렌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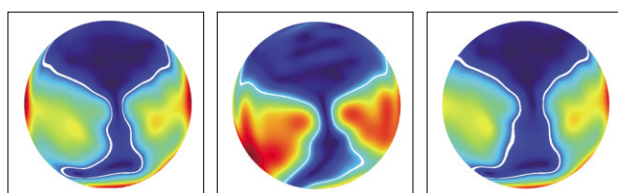
■ ASAHI Multi Layer Coating



성, 방유성, 정전기 방지성능 등이 장기간 유지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SAHI코팅은 전세계 안경렌즈 시장을 압도하는 ASAHI코팅 기술력으로 탁월한 내구성과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ASAHI코팅의 독립적인 코팅 테스트는 오랜 사용기간과 잦은 세척에도 렌즈의 투명도와 반사방지 성능은 물론 발수

■ 주요 생상품 별 실린더 맵 비교



ASAHI-LITE

ASAHI-PREMIUM

ASAHI-ARITA

■ 디지털 누진다초점렌즈

3D 프리폼 가공으로 넓고, 편안하며 선명한 시야를 원하는 고객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개인별 누진렌즈로 부드러운 시야를 보장합니다.

■ 개인맞춤형 누진다초점렌즈

유럽 정통의 누진다초점 설계를 기반으로 동양인에게 최적화된 시야를 제공하며, 세 가지 타입으로 출시되어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립니다.

■ 중근용 누진다초점렌즈

사무실 등 실내활동이 많은 고객에게 특화된 전용 누진렌즈로 중·근거리에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현대인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 아사히 여벌렌즈

1.56 비구면 UV420 / 1.60 비구면 UV420 / 1.60 HMC / 1.70 비구면 / 1.67 양비 / 1.67 3G 양비 / 1.74 양비 / 1.74 3G 양비

Asahi 렌즈 일정금액 구매 약정시
누진다초점 3D측정기 아이원을 무상설치해드립니다. | 상담 010-9662-6898

FOREIGN NEWS

정리_허정민 기자



‘5G 시대엔 VR안경’

2018 세계모바일컨퍼런스상하이(MWCS)가 지난 27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곧 펼쳐질 5G 시대의 다양한 사업전개와 사람들이 누리게 될 다양한 경험들을 미리 제

공해 업계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5G + VR’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VR안경이 공개돼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

‘안경인은 똑똑하다?’ 진실 혹은 거짓

英 연구팀, 인지능력과 유전자 관계 연구… 인지능력 높으면 안경 유전자



영국 에든버러대학교의 연구팀이 일반적인 인지능력에는 시력과 수명 등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 결과를 지난 5월말 온라인 학술미디어 「Nature Communications,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지 능력과 안경을 쓰는 것에는 유전적인 상관관계가 인정되는데,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8%의 높은 확률로 안경을 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16세부터 102세까지의 30만 486명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련된 52개의 특성과 유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6개의 특성에서 뚜렷한 유전적 상관관계가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인지능력과 유전자와의 관련에 주목한 이번 연구결과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과 지성과의 상관관계에 그치지 않고, 오랜 탐구 영역으로 남아 있는 인간 인지능력의 메커니즘을 유전학의 관점에서 밝혀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경대국’ 중국은 근시 인구도 대국

총인구의 3명 중 1명이 근시인구… 2020년에 근시환자 약 7억 명 도달 전망

중국이 ‘안경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대학교가 발표한 ‘국민시각건강보고’에 따르면 2012년 전국 5세 이상의 총인구 중 시력에 결함이 생긴 인구는 5억명, 이 중 근시자 수는 4억 5천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중국 인구의 3명중 1명은 근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34년 동안 중국 초중고 학생의 근시율은 3배로 증가했다.

지난 5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근시가 있는 중국인의 수는 4억 5천만명으로 근시는 젊은 층에서 흔하면서 특히 근시 진행이 빠르고 그 정



▲ 중국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시력 측정을 하고 있는 모습.

도가 심해지는 양상이다. 만약 근시에 대해 당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0년까지 5세 이상 인구의 근시 발병률은 51%까지 치솟아 무려 7억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시질병예방제어센터의 관계자는 “어린 아이들의 근시를 예방하려면 햇빛을 자주 쬐고, 야외활동을 매일 적어도 1시간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3D안경 구매 고지 안 했으므로 환불하라!’

중국 법원, 사전에 3D안경 구매 고지 안한 영화관 상대로 소송 제기한 변호사에 승소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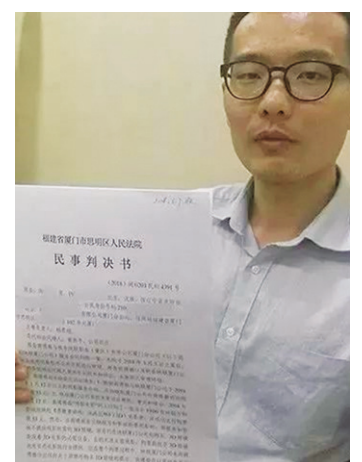
중국 사면의 한 변호사가 3위안(한화 약 510원)짜리 3D 안경테 하나를 문제 삼아 영화관을 고소해 승소했다.

상변호사는 올해 1월 어느 영화관으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온라인의 티켓 사이트의 그 어떤 곳에서도 3D안경을 구매해야 한다는 고지가 없었다. 현장에 도착해서야 3D안경을 구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상변호사는 영화관을 상대로 환불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1심에서 상변호사의 손을 들어줘 영화티켓 가격 53위

안약 9천원 전액 돌려받았다.

상변호사는 “3D안경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있어야 소비자는 사정을 이해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만약 자세한 고지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이는 영화관과 소비자 간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중국의 많은 영화관은 무료로 3D안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별도로 돈을 더 지불하고 안경을 추가구입하고 있다.



▲ 3D안경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영화관을 상대로 티켓 환불소송을 제기한 중국의 상변호사.

‘안경과 함께하는 미술전’ 이란?

日 아오모리 등에서 시각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순회 개최

일본 토리메가연구소가 주최하는 ‘안경과 여행하는 미술전’이 개최된다. 토리메가연구소가 주최하는 전람회는 미술뿐 아니라 문학, 과학, 만화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아우르는데, 올해는 연구소의 상징인 안경을 테마로 ‘시각’이라는 장대한 주제에 도전하는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안경을 키워드로 심오하고도 재미있는 세계를 체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번 미술전은 아오모리 현립미술관 등에서 7월 20일부터 개최된다.

토리메가연구소는 장르의 울타리를 넘어 넓은 시각 문화에 대해 고찰하는 전람회 개최를 목적으로 2008년에 결성된 연구팀이다.



‘안경 산지’의 부가가치 높이는 안경박물관

사바에시 지역경제에 안경박물관 큰 기여… 연간 내외국인 18만 명 방문하고 안경 구입도 활발

일본 안경테의 산지 후쿠이현 사바에시가 즐거움에 빠져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사바에시의 안경박물관에 약 18만명이 방문했고, 지난 6월에 개최된 안경 페스티벌에는 약 1만 6000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등 안경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면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바에시의 안경박물관은 산지의 역사를 소개하거나 프레임을 만드는 공방뿐만 아니라 현 내 42곳의 안경업체가 제조한 3,000점

이상의 안경테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장까지 갖추고 있다. 가격대는 평균 2만 5천엔(약 25만 4천원)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통 일본제를 원하는 고객들로 호황을 맞고 있다.

이곳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는 “진짜가 갖고 있는 가치는 소비자에게 전해진다”며 “근래의 소비자는 장인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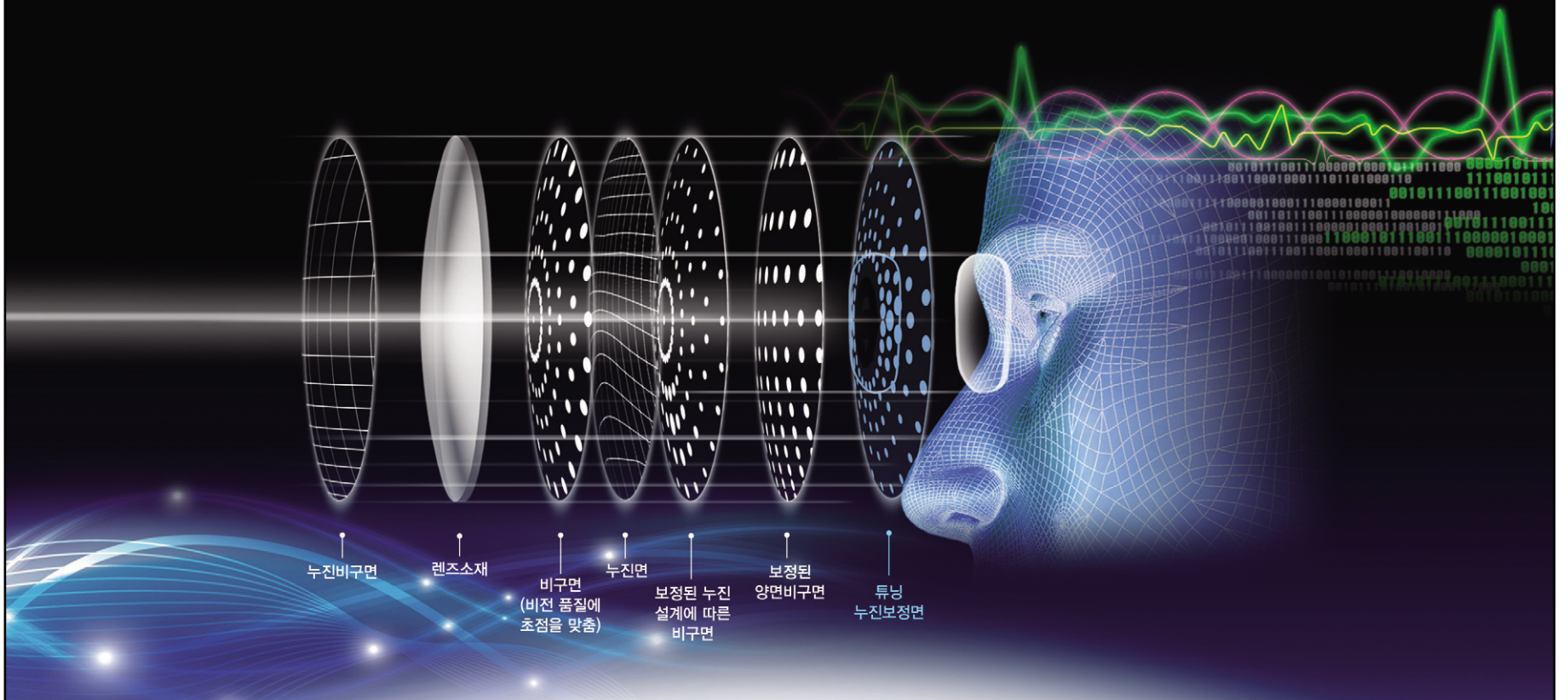
▲ 사바에시 ‘안경의 거리’에 설치된 안경테 모양의 조형물. ‘ゆがね産地さばえ(안경산지 사바에)’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집과 제조 과정에서 가치를 찾는 경향이 있어 후쿠이의 안경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MYTUNE

RESONAS SERIES



마이튠 엔진

프레임 형상
데이터에 따른 보정



아이포인트
데이터에 따른 보정

프레임 형상 데이터를 아이 포인트에 따라 독자적인 설계 기술로 보정하여 최적화, 고객 여러분의 퍼스널 메이드 렌즈를 만들어 드립니다.



뇌 과학

E.N 스파이럴 모델

렌즈를 통해 보이는 것을 뇌파로 계측하여 뇌가 기분 좋게 느끼는 시표를 현실화했습니다.
이 시표를 가지고 누진 렌즈를 설계했습니다.



고객 한사람 한사람에 맞춰 마이튜닝.
여러분의 누진 렌즈를 퍼스널 메이드로 설계.

News



오렌즈, 280호점 상금 오픈

(주스타비전(대표 박상진) 오렌즈의 제280호점인 대전복합터미널점이 지난 16일 성대한 오픈행사와 함께 본격 개점했다. 대전시의 변화가 중 한 곳인 대전복합터미널 내부

에 자리 잡은 대전복합터미널점은 주변에 수많은 쇼핑몰과 각종 문화시설이 운집해 향후 다양한 고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문의 02)569-3914

안경테

아크로폴리스&비아 신상 나왔다!

비아리코, 비아 도수테 7종 긴급 출하... 개성 디자인에 가격도 매력적

(주비아리코에서 최근 ACROPOLIS의 도수테와 더블 브리지의 개성 넘치는 VIA 도수테 신상 7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크로폴리스 도수테는 기존 130여종의 모델에서 각각의 두 브리지가 포인트로 들어간 프레임의 디자인으로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두 브리지의 비아 도수테는 캐주얼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매력을 제공해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자사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신제품을 매월 다양하게 개발 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2)319-0718-9

콘택트렌즈

‘홀리캐트’ 은 소비자가 원하는 렌즈

지오메디칼, 컬러와 디자인, 착용감 모두 만족... PC성분 채택으로 착용감도 촉촉

(주지오메디칼(대표 박화성)의 대표 프리미엄 컬러 콘택트렌즈 ‘Holicat’이 소비자 선택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발표된 리서치 결과 소비자들의 컬러 콘택트렌즈 선택의 중요 요소가 컬러와 디자인, 그리고 착용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격과 브랜드는 의외로 낮은 답변을 받음으로써 홀리캐트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 Sexy Cat 등 총 47가지 콘셉트로 구성된 홀리캐트는 각각의



아이템마다 다른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해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만족이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인체의 세포조직과 유사한 분자구조인 생체 친화물질인 퍼스퍼릴콜

린(PC: Phosphorylcholine) 성분을 이용해 기존의 헤마 소재를 사용한 제품에 비해 촉촉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의 062)973-0740

림락, 뷰티 아이템으로 급부상

디엠무역, 케이블 CTIME 방송서 림락 소개... 얼굴에 입는 뷰티 자리매김

(주디엠무역(대표 신동명)의 Rimrock이 케이블TV CTIME의 ‘뷰티플레이어’에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방영된 방송에 걸그룹 소나무의 디애나 씨가 출연해 ‘얼굴에 입는 뷰티 아이템’으로 아이웨어를 선보였는데, 이때 림락을 화면에 자세히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림락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에게 안경은 하나의 패션 뷰티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분들은 뷰티플레이어에 소개된 다양한 팁과 함께 림락 아이웨어로 ‘얼굴에 입는 뷰티’를 시도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2)2653-1500

소아용 안경 ‘플레이키즈’ 판매 강세

상하팩토리, 디옵스서 첫 출시 후 국내외서 인기... 첫 출시 물량 완판

(주상하팩토리(대표 이상운)가 지난 4월 대구국제안경전(디옵스) 때 처음 선보인 소아



용 시리즈 PLAY KIDS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S7&LUVU 아이웨어와 동일하게 템플의 탈부착이 가능한 플레이 키즈는 템플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실리콘-고무의 합성재질을 이용한 고탄성 실리콘 패드를 사용해 어린이가 입에 넣어도

무해하면서 손으로 잡아 당겨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디옵스 이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지금 첫 번째 생산량은 거의 완판된 상태”라고 전했다. 문의 031)1577-1622

앤365, 신제품 9종 대거 출하

7월 초에 1달 착용 믹스앤 시리즈 런칭... 최근 트렌드에 맞게 그래픽 사이즈 축소

콘택트렌즈 전문기업 앤365(대표 최성흠)에서 오는 7월 믹스앤 시리즈 9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 달 착용 렌즈인 이번 신제품의 믹스앤 홀리데이의 성분은 헤마이고, 믹스앤 시그널과 믹스앤 하와이안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최근 컬러렌즈의 트렌드에 적합하도록 그래픽 사이즈를 작게 한 것이 특징으로 그래픽 사이즈는 믹스앤하와이안이 120mm, 나머지는 모두 127mm”라고 전했다.

문의 02)841-9009



콘택트렌즈 군단 렌즈미 주력 아이템 2종 첫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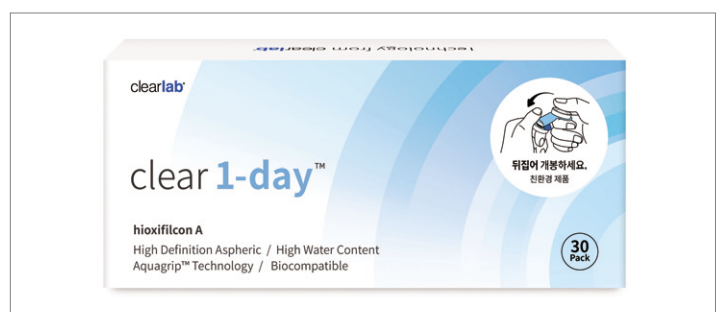


(주렌즈미(대표 송민섭)가 노블샤인 프로즌 그레이와 시크릿 티어를 선보였다. 노블샤인 프로즌 그레이의 그래픽 직경은 135mm이고, 한 달 착용 렌즈인 시크릿 티어는 브라운, 그레이, 초코 컬러로 그래픽 직경은 135mm이다. 회사의 관계자는 “시크릿 티어는 1+2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031)574-9595

클리어원데이, 가격 내리니 판매 ‘쑹’

미광콘택트, 전 세계가 인정한 제품 가격 인하 후 판매 호조



(주미광콘택트렌즈(대표 박종구)가 지난해부터 clear 1-day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율이 고공 행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생산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과 원데이 렌즈의 소비층 확대 등에 힘입어 약 20%의 가격을 인하한 이후 클리어원데이 30개입의 판매량이 최근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 것.

미광콘택트의 마케팅 담당자 “자사의 제품을 가격 인하해 자칫 저가 원데이 렌즈로 인식될 수 있지만, 미광 제품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품질을 인정받는 최우수품으로 향후 자사는 클리어원데이의 품질을 강조하는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1588-8590

안경테

타격 상승의 비결은 '아카디우스'

한화이글스 이성열 선수에 협찬... 뛰어난 착용감도 타율 상승 한몫

초경량과 친환경 소재로 유명한 ARKADIUS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외야수 이성열 선수에게 협찬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시즌부터 경기에 나설 때마다 이성열 선수가 아카디우스의 Retro-3152 컬렉션을 착용하고 있는 것.

아카디우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즌 신상인 레트로-3152는 베타 티타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제작돼 매우 가볍고 착용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며 "아카디우스를 착용한 이후 이성열 선수의 타율도 쑥쑥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2)478-8314



프랜차이즈

아이데코, 서울 강동점 그랜드 오픈

서울 강동구 중심상권에 진출... 본부 "뛰어난 경쟁력과 성공 사례 입증할 터"

(주)앤디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이데코의 서울 강동점이 지난 15일 새롭게 오픈했다.

서울지하철8호선 암사역의 인근에 자리 잡은 아이데코 강동점은 천일중학교와 강동, 천호초등학교 등 학교 근린시설이 밀집한 주거단지에 위치해 암사동 지역의 중심 안경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지앤디 체인본부의 한 관계자는



"타 체인 안경원에서 이번에 아이데코로 새롭게 출발한 강동점은 아이데코 안경원의 뛰어난 경쟁력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

라며 "본부는 가맹 안경원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31)427-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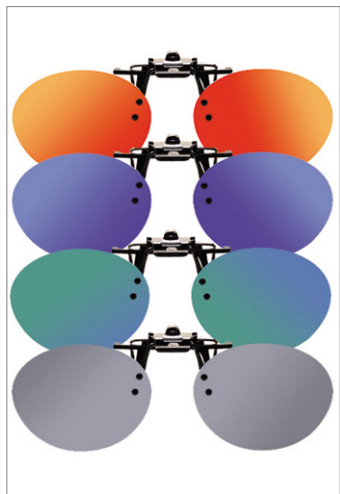
편하다... 자유롭다...

게이트웨이, 라운드 스타일의 '편광 클립' 안경과 선글라스 동시 사용

게이트웨이(대표 박호신)에서 라운드 스타일의 편광 클립을 새롭게 선보였다.

56mm 폭에 상하 50mm의 오버 사이즈 라운드 스타일과 미러 클립으로 구분되는 이번 신상은 저시력자들이 안경 위에 간편하게 부착해 선글라스 대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이트웨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상은 안경과 선글라스를 구분해 사용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간편하게 편광 클립만 사용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자사는 조만간 또 다른 스타일의



아이웨어 클립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02)774-7684

개성파 '칸쿤블루 선글라스' 런칭

선그리 스타일 하우스와 카페베네가 함께하는 카리브해 연상



(주)룩옵틱스(대표 허명호)의 패션 선글라스 전문샵 브랜드인 SUNGRI STYLE HOUSE와 Caffe Bebe가 함께하는 '칸쿤블루 선글라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칸쿤블루는 카페베네의 여름 신메뉴의 콘셉트로 멕시코 칸쿤의 푸른 카리브해를 연상시키는 그라데이션

블루 컬러가 특징이다.

이번 신상은 푸른빛의 컬러감이 미러렌즈에 반영되어 청량하고 시원한 인상 연출이 가능하고, 렌즈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 바캉스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02)3116-8117

(주)글라스스토리(대표 박창진)의 서울 망우점이 새롭게 오픈했다.

망우역의 인근에 위치한 글라스스토리 망우점은 주위에 아파트, 학교, 병원 등 복합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상권에 입점해 1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 유입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망우점은 평범한 안경원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동화될 수 있는 그레이 계열의 모노톤 인

테리어 및 깔끔한 외관 분위기로 지역 고객층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글라스스토리 체인본부의 홍보팀 관계자는 "자사는 최근 오픈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증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객이 찾아가는 안경원이 될 수 있도록 본사도 마케팅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의 1899-1541



안경체인 토마토DNC, 신제품 컬렉션 런칭



(주)토마토디앤씨(대표 김용오)가 여름 시즌에 대비해 PB 제품인 DEN PREMIUM의 신제품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 중 안경테는 초경량 메탈 소재로 림 디자인이 유니크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컬러는 블랙과 골드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또한 선글라스는 블랙 프레임과 골드의 멋진 조화로 전 연령대가 소화할 수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렌즈 채택으로 눈 건강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토마토디앤씨 상품기획팀의 관계자는 "자사는 신제품을 매월 2~3장씩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70-8672-7833

'뉴스레터'엔 새 소식과 정보 가득

이노티, 6월호에 협력업체별 프로모션 안내와 상품행사 등 수록

(주)이노티안경체인(대표 채경영)의 6월 소식지 'news letter'가 발간됐다. 매월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이노티의 이번 6월호는 신규 오픈점 소개와 이노티 PB렌즈 제품별 기능안내, 국제증명 발급안내, 양안시 2주 완성 교육일정, 7월 이노티 공동행사, 신제품 출시 및 수주회 안내, 신규 협력업체 소개, 이노티 이벤트 홍보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물류와 마케팅, 각종 정보를 전하는 뉴스레터는 협력업체별 프로모션 안내, 상품행사, 마케팅 정보, 공지사항 등이 상세히 게재돼 가맹점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뉴스레터는 본사와 체인점 간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80-533-1000

인천시안경사회 - 원시스 MOU

회원 안경원에 관리비 없이 단말기 임대... 24시간 업무대응 등 혜택



인천시안경사회(회장 이주신)가 카드단말기업체인 원시스(대표 강현봉)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인천시안경사회의 사무국에서 진행된 협약식을 통해 인천시안경사회 소속 안경원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POS(포스)의 임대나 구매, 설치에 관한 상호

협력 서비스가 확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안경사회 소속 안경원은 ▶단말기 관리비 없음 ▶폐업 시 위약금 없음 ▶단말기 설치 매장 블로그 작업지원 ▶카드결제 시스템지원 ▶안경원 대상 24시간 업무대응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문의 032)424-5502

데코비전

렌즈 구입하면 '변색 테스트' 증정

데코비전, 오는 9월말까지 렌즈 구입하면 변색렌즈 테스트 기기 증정

(주)데코비전(대표 유상훈)의 니덴렌즈사업부가 최근 Transitions 156 ASP gray 여벌 렌즈를 출시했다. 이와 함께 데코비전은 안경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변색렌즈 판매가 용이하도록 콤팩트한 디자인의 변색 테스트 기기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이벤트는 클라비스 시리즈 3조, 변색 Rx 3조, 변색 여벌 5조, 여벌 세트 등의 주문 시 테스트 기기를 증정받을 수 있는데, 이 기기는 변색렌즈의 농도 등을 실제로 확인되어 안경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02)335-7077

2018 실모방콕의 화려한 출발

태국 최초의 국제 광학전으로 전 세계 안경 관련인 4천여 명 참가

실모방콕아세안옵티칼 페어 (SILMO BANGKOK ASEAN OPTICAL FAIR, 실모방콕)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의 임팩트전시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실모파리, 실모이스탄불 등과 함께 전 세계 거점지역에서 개최되는 '또 하나의 실모'로 불리는 이번 실모방콕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4천명 이상의 참가객이 방문해 '실모' 브랜드의 파워를 과시했다. 특히 이 전시회는



사전에 실모사무국에서 선택한 여러 컬렉션이 모여 있는 실모 팝업스토어가 큰 눈길을 모았고, 세계 광학업계의 유명 강사들이 참가한 무료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실모방콕에는 한국의 20개 업체가 참가했다.

문의 +66(0)2833-6340

대안협 중앙회 임원 워크숍 성료

임직원 100여명 참석... 군부대 방문해 선글라스 기증식 가져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종석) 중앙회가 임직원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김종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의 나아갈 방향과 임직원의 소명의식에 대한 강론을 펼쳤고, 이후 6차 상임이사회와 각 직책별 분임토의, 직원 직무교육 등이 이어졌다. 이어 2일차에는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제22사단 GOP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선글라스 기증식을 가졌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김종석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의 업무능률의 향상과 친목도모를 이루는 소중한 시간으로 이를 기점으로 회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협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문의 02)756-1001

안광학회 · 시과학회 공동학술대회 성료

역대 최다 구연과 포스터 발표... 풍부한 학술적 성과 거두며 폐막



한국안광학회(회장 박미정) · 대한시과학회(회장 이군자)의 2018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양 학회의 박미정 회장과 이군자 회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근거리 시각매체의 청색광 비유의 조절래그에 미치는 영향' 등 11편의 구연발표와 총 96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돼 풍부한 학술적 성과를 남겼다. 공동학술대회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역대 가장 많은 구연과 포스터 발표로 뜨거운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며 "특히 대한안경사협회 등에서 후원한 기탁금이 학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문의 062)520-2365

국제대 안광과, 아큐브 토릭렌즈 특강



국제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정연홍)가 지난 14일 콘택트렌즈 전문가양성을 위해 아큐브 토릭렌즈 특강을 진행했다. 3학년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의 강사는 아큐브 교육팀의 장영은 차장이 맡아 피팅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특강에 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육된 내용을 함께 풀어보는 퀴즈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문의 031)612-9282

MEGA Member of Excellent General Agency

법인영업 · 기업컨설턴트 · 재무설계사 특별채용

최고의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세요!

(주)MEGA

- 모집분야 — (주)MEGA CN사업단 기업금융본부
- 담당업무 — 법인컨설팅,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등
- 근무형태 — 위촉계약직
- 근무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6, 8층 (대치동, 노벨빌딩)
-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 이메일접수(keirich@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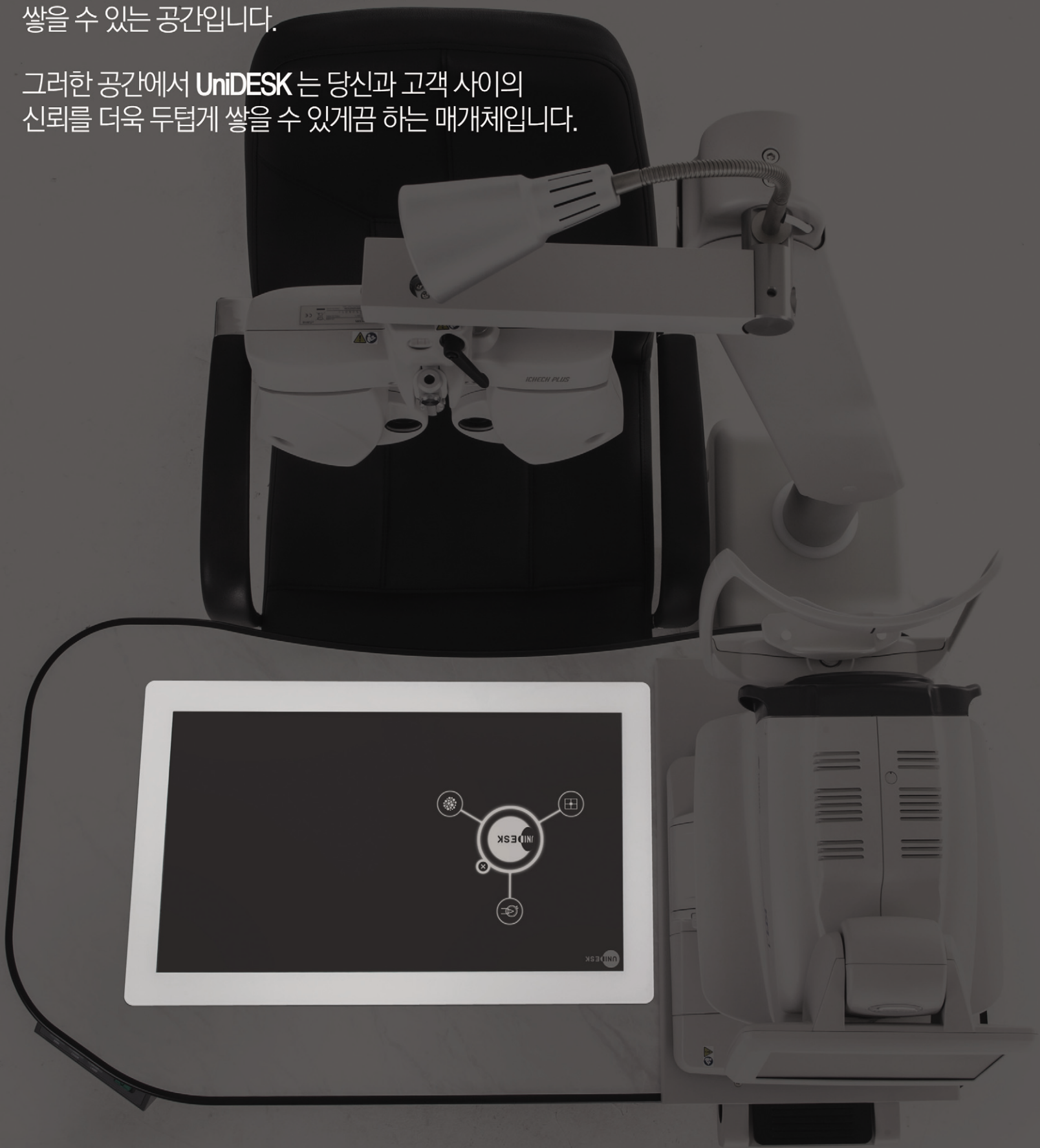
문의사항 : 02)6949-5442(내선1196)

고객의 선택은 검안실에서 결정됩니다.

검안실은 안경원에서 가장 작은 공간이지만
고객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검사와 안경사의 멘트 하나하나가 집중되는 곳으로
좁은 공간 안에서 몇 가지 단어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UniDESK** 는 당신과 고객 사이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을 수 있게끔 하는 매개체입니다.



iFLINT

(주)아이플린트



031.8084.3737



031.8084.3738

TYPE A

Edger

Delta2 + TESS essilor

Refraction System Unit

URK-700 unicos

UDR-800 unicos

ULC-800S (무편광) unicos

RT-13 (암대 상하고정형) RDEK

Lensmeter

ULM-800 unicos

MLM150E essilor

Acc.

디지털 PD미터 (X81705, Essilor)

검안렌즈세트

검안경 3ea (58/62/66)

드라이버세트 (TOUA10, Essilor)

초음파세척기 2ea

히터 2ea

수동목습기

가공용 양면테이프 2Box (2,000장, Essilor)

착한 가격에

세트가격 대박할인

목돈 부담없이

36, 48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

한 방에

원-스톱 플세트 쇼핑

₩1,000,000

36개월 무이자 할부 (VAT 포함)



Essilor / Unicos 한국총판

(주)신일광학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2층 207호 (회현동 1가, 롯데캐슬아일랜드)

상담전화: (02)752-2325, (02)756-0876